

## 국어 김준 적중 근거

A형 2번	국어 A형 영역	강좌명	11월 문법쇼
		수업일 정보	

기출문제 A형 2번(기출문제 정보 작성)	적중 근거 자료
<p>2. 다음을 읽고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2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음운 변동은 음운론적인 조건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불나비[불라비]', '달님[달림]'에서의 유음 동화는 '/ㄹ/ 뒤'라는 조건 환경에서 일어난다. '/ㄹ/ 뒤'는 음운론적인 조건 환경이다.</p> <p>그런데 음운 변동의 조건 환경 중에는 (3), (4)처럼 음운론적인 정보에 더하여 형태론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1), (2)에서 보듯이 음성학적으로 유성 자음인 유음과 비음 뒤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3), (4)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3)과 (4)의 경음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음화의 조건 환경에 형태론적인 정보가 필요하다.</p> <p>(1) ㉠ 딸기[딸기], 찹지[찹지], 안개[안개]                  ㉡ 글쟁이[글쟁이], 땀장이[땀장이], 자랑질[자랑질]</p> <p>(2) ㉠ 잠도[잠도] (자고), 돈도[돈도] (벌고)                  ㉡ (잡이) 깐다[깐다], (집에) 간다[간다]</p> <p>(3) 가을비[가을베], 숨구멍[숨꾸멍], 방구석[방꾸석]</p> <p>(4) (아이를) 안다[안따], (다락에) 숨다[숨따]</p> <p>(1)을 고려할 때 (3)의 경음화의 조건 환경에는 단어 중에서 ( ㉠ ) (으)로 그 대상이 한정된다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2)를 고려할 때 (4)의 경음화의 조건 환경은 단순히 비음 뒤가 아니라 ( ㉡ ) 비음 뒤라고 해야 한다.</p> </div>	<p>A형 2번 자료 : 11월 문법쇼</p> <p>6. 경음화 현상</p> <p>1) 평파열음 뒤</p> <p style="margin-left: 20px;">①잡고, 밥도, 믿지, 먹소, 국부터 cf. 쌀밥</p> <p style="margin-left: 20px;">②깁다, 옷고름, 솔전, 앞사람</p> <p style="margin-left: 20px;">③맡게(맡게→맡께), 앞자(안ㄷ자→안ㄷ짜→안짜), 핥다, 읊다</p> <p style="margin-left: 20px;">④뺏사람, 잠자리</p> <p>2) 용언어간 말음 'ㄴ, ㅁ' 뒤</p> <p style="margin-left: 20px;">①안고, 신다</p> <p style="margin-left: 20px;">②담고, 감더라</p> <p style="margin-left: 20px;">③답습니다(→답습니다→답습니다), 젊지(→젊찌→점찌)</p> <p>3) 관형사형 어미 뒤</p> <p style="margin-left: 20px;">①먹을 것을, 할 바를, 먹을 데가, 만날 사람</p> <p style="margin-left: 20px;">②비흘 싸르미(직접 표기)/비흠 사르미(간접 표기)</p> <p>4) 한자어 뒤</p> <p style="margin-left: 20px;">①영하 8도, 방년 18세, 98점</p> <p style="margin-left: 20px;">②제8과, 3학년 8반</p> <p>5) 합성명사에서</p> <p style="margin-left: 20px;">①보름달, 아침밥 (시간)</p> <p style="margin-left: 20px;">②들쥐, 길거리 (장소)</p> <p style="margin-left: 20px;">③술잔, 쌀가게 (용도)</p> <p style="margin-left: 20px;">④술방울, 문고리 (기원/소유주)</p>

## 국어 김준 적중 근거

A형 8번	국어 A형 영역	강좌명	7,8,9 문제풀이 통사론(1)
		수업일 정보	

기출문제 A형 8번(기출문제 정보 작성)	적중 근거 자료
<p>8. 다음은 단어와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이다. &lt;작성 방법&gt;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부사는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관형사는 관형어로 쓰인다. 명사는 문장에서 격 조사와 결합하여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쓰이고, 동사와 형용사는 서술어로 쓰인다. 그리고 단어만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절도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p> <p>(1) 소쩍새가 구슬피 운다.                  (2) 가을 하늘이 눈이 부시도록 푸르다.                  (3) 꿈처럼 하루가 지나갔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작성 방법&gt;</p> <p>○ (2), (3)에서 부사어를 찾아 각각 쓸 것.                  ○ '부사어는 모두 부사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될 수 없음을 (2), (3)의 예를 각각 들어 설명할 것.</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54. 다음 &lt;보기&gt;를 토대로 부사어의 성립 양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text-align: center;"> <p>&lt;보기&gt;</p> <p>(1) 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떠납시다.                  (2) 너는 오늘도 회사에 나가니?                  (3) 놀 만큼 놀았으니 이제 공부 좀 해라.                  (4) 자동차가 신나게 달린다.                  (5)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6) 세월이 빨리도 가는구나.</p> </div>

## 국어 김준 적중 근거

A형 9번	국어 A형 영역	강좌명	7,8,9 문제풀이 중세국어문법(3) - 통사론
		수업일 정보	

기출문제 A형 9번(기출문제 정보 작성)	적중 근거 자료
<p>9. (가)는 중세 국어 선어말 어미 '-오-'와 '-도-'에 관한 설명이고, (나)는 이들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어 있는 중세 국어 문장이다. (가)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결과를 &lt;작성 방법&gt;에 따라 서술 하시오. [4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가)</p> <p>중세 국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는데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선어말 어미가 여럿 있다. '-오-'와 '-도-'도 그러한 선어말 어미인데, 이들은 다른 기능을 가지면서도 교체 환경에 따라 같은 형태로 실현되기도 하여 중세 국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주의를 필요하다. '-오-'는 종결형과 연결형에서 주어가 1인칭일 때 사용되며, '-도-'는 화자의 감탄적인 느낌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그리고 '-오-'는 서술격 조사 뒤에서 '-로-'로 교체되는데, '-도-' 역시 서술격 조사와 선어말 어미 '-리-' 뒤에서 '-로-'로 교체된다. 한편 선어말 어미 '-오-' 뒤에서 종결 어미 '-다'는 '-라'로 교체되지만, '-도-' 뒤에서는 그렇지 않다.</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나)</p> <p>善友(선우)   널오더          그리 아니라 나는 波羅捺王(파라나왕) ㉠ 善友太子   로라          그 쓰리 널오더          그되 2장 어린 ㉡ 사르미로다 &lt;월인석보 22:58&gt;</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 <p>&lt;작성 방법&gt;</p> <p>○ ㉠, ㉡의 선어말 어미를 교체 이전의 형태로 각각 쓰고, ㉠의 선어말 어미를 그렇게 분석한 근거 3가지를 서술할 것.</p> </div>	<p>30. 다음 &lt;보기&gt;의 밑줄 친 부분에 실현된 선어말 어미의 기능상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text-align: center;"> <p>&lt;보기&gt;</p> <p>(1) 내 부터 弟子   로니 &lt;석보상절 24:16&gt;              (2) 沙門은 님 지슌 너르믈 먹느니이다 &lt;석보상절 24:22&gt;              (3) 내 이제 조고맛 疑心 이리 이셔 世尊의 문줄 노니 &lt;월인석보 21:115&gt;              (4) 그되는 버들 두듬에 너거든 나는 渡頭入 물애 예 자다라 &lt;금삼 4:5&gt;              (5) 우리 오늘 이 구즌 길힐 免亨야 흰히 便安호 물 得과라 &lt;월인석보 14:77&gt;</p> </div>

## 국어 김준 적중 근거

B형 5번	국어 B형 영역	강좌명	7,8,9, 문제풀이 음운론(1)
		수업일 정보	

기출문제 B형 5번(기출문제 정보 작성)	
<p>5. 다음은 음운 변동들 간의 적용 순서에 대한 것이다. (1), (2)에 적용된 음운 변동들에 대해 &lt;작성 방법&gt;에 따라 설명하시오. [4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둘 이상의 음운 변동이 적용될 때는 음운 변동들이 순서 없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음운 변동들 간에 내재적인 순서가 있다. 예컨대 '놓아(/noha/) → [놔:]([nwa:])'의 경우, 표면형 [놔:]에 적용된 분절음의 음운 변동은 '/ㅎ/ 탈락'과, '/o/ → /w/' 즉 '/w/ 반모음화' 두 가지이다. 이때 두 음운 변동 간의 적용 순서는 '/ㅎ/ 탈락' &gt; '/o/ → /w/'이다. 왜냐하면 ㉠ '/ㅎ/ 탈락'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o/ → /w/'의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p> <p>이처럼 둘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표면형에서는 음운 변동들 간의 적용 순서를 분석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p> <p>(1) 일일이[일리리], 휘발유[휘발류]</p> <p>(2) 십리[십니], 학력[항녁]</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 &lt;작성 방법&gt; —</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1), (2) 각각에 적용된 구체적인 음운 변동들을 적용 순서를 밝혀 쓰고, 왜 그러한 순서이어야 하는지를 ㉠과 같은 형식으로 각각 설명할 것.</p> </div>	<p>59. 다음 &lt;보기&gt;의 예에서 나타나는 음운현상에 대해서 밝히고, 이 두 현상의 음운제약에 대해서 설명하시오.</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20px 0;"> <p>_____ &lt;보기&gt; _____</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1) 권력, 산란, 변론, 천리</p> <p>(2) 백로, 중력, 늪름, 압력</p> </div>